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2024. 02. 16.(금)
18:00

주최



한국영상기자협회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후원

Panasonic

협찬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987년 11월 7일 출범해 올해로 37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방송사 영상기자들이 모인 직능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987년 우리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와 언론자유 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취재의 자유와 진실보도, 시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취재, 보도문화를 확립하고, 영상기자들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한국영상기자상

한국영상기자상은 1987년 12월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하는 보도영상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매달 협회 심사위원회(영상기자 출신 원로, 각 사 데스크급 영상기자, 언론학자, 언론법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자들의 영상보도물들 중, 올해 한국의 TV뉴스에서 방 송한 최고의 영상보도들을 가려내 시상합니다.

한국영상기자대상 및 각 부문별(뉴스, 기획보도, 지역뉴스, 지역기획보도, 멀티보도 등 11개 분야의 최고 영 상보도와 이를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를 뽑아 시상합니다.

올해도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외 뉴스현장에서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영상보도를 통해, 뉴스 속 진실 을 전달하고 오늘을 역사로 기록해 온 영상기자들에게 시상해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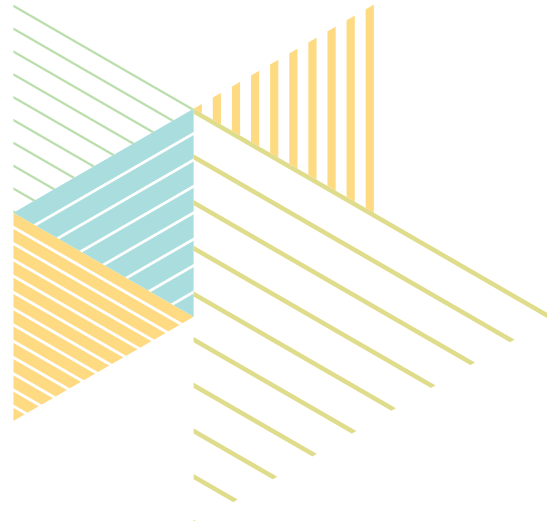
올해의 굿뉴스메이커상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해 연말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한 해 동안 시청자와 국민들을 기쁘게 했거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나 단체를 '굿뉴스메이커상' 수상자 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굿뉴스메이커상'은 영등포역 승강장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고 열차에 치여 다리 를 잃은 김행균 역무원을 첫 회 수상자로 시작해, 2022년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에서 투혼과 의지, 멋지고 감동스러운 경기들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지친 국민들에 게 큰 기쁨을 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이 상을 수여했습니다.

식순

- 나준영 회장 인사말
- 내빈소개
- 내빈축사
- 서태경 심사위원장 심사평
-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시상
KBS전주 한문현 「현장K」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단독 기획보도」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시상
KBS대구 최동희 「KBS 기획보도 욕창이 온다」
- 2023 굿뉴스메이커상 시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 보도특집다큐부문 시상
제주MBC 김현명 「제주MBC 4.3 특별기획 남겨진 아이들」
- 국제,통일보도부문 시상
SBS 최대웅 「SBS 8뉴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
- 멀티보도부문 시상
목포MBC 김승호 「목포MBC 10부작 미니 다큐멘터리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
- 공로상 시상(협회 발전 및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성공 공로자) 시상
YTN 김경록 부회장
부산MBC 손영원 부회장
- 공로상 (영상기자 역량강화 사업 공로자) 시상
장민주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교육팀 대리
이수연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교육팀 주임
- 환경보도부문 시상
KCTV제주방송 김용민 「KCTV환경기획 뉴스멘터리 사라진 제주 돌」
- 대상 시상
KBS부산 김기태 「KBS 뉴스7 연속기획 '목소리」
- 축하 건배 및 케이크 커팅



우리 협회는 매일 매일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영상보도들 중 함께 기억하고 격려해야 할 좋은 영상보도와 이를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의 고민과 노력을 살피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난 영상보도들 중 그 해를 대표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상보도와 이를 기록하고 전달한 영상기자들에게 '한국영상기자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우리 협회는 28편의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선정해 시상했고, 오늘, 2023년 최고의 영상보도와 영상기자를 기념하고 격려하는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을 수상하는 <연속기획 목소리>의 KBS부산 김기태 기사를 포함한 7명의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같은 현장의 동료로서 큰 존경과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의 독립과 생존이 어느 때보다 크게 위협받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들 방송사의 영상기자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의 본분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민과 노력을 벌여왔는가를 증명하는 결과물들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상식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사의 독립과 발전의 토대가 위협받는 현실을 우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카메라와 영상기술이 발명되고 발전해오면서 사람들은 '카메라와 영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중의 믿음은 과학기술발전의 산물로서 '카메라'와 '영상기술'이 가진 '기계적 사실재현성'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들이 대중들이 보고 듣고 확인하고 싶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 그 속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 전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은 결코,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촬영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와 인간의 믿음이 우리 영상기자라는 직업과 우리가 생산하는 '영상저널리즘'의 근간이자 강

력한 존재이유가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자들과 수상작들은 오랫동안 영상기자와 영상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영상이 인간소통의 중요한 언어가 된 시대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의 현장 한 가운데서 대중의 눈과 귀가 되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저널리스트의 관점과 입장에서 진실에 다가서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분석해 전달한다는 것은 영상기자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7명의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들이 전국의 영상기자들에게 더 좋은 영상보도를 위한 '착한 경쟁'의 마중물이 되어, 2024년도에도 오늘의 성과를 이은 영상기자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지난 몇 년 간, 한국영상기자협회와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해 발전시켜 온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해 온 두 분의 회원께, 그리고, <영상보도가이드라인>보급과 영상취재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 연수,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 온 분들께 협회원들을 대신해 감사의 공로상을 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경제침체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분쟁으로 인해, 침울해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누리호'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한 한국항공우주원과 소속 연구원들에게 영상기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시상식에서 '2023년 굿뉴스메이커상'을 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과 그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제와 한계들이 투영된 사건과 사고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전달하느라, 모든 영상기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3년 한국영상기자상의 주인공들입니다.

심사평

서태경

심사위원장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수상작들을 선정했습니다.

어느 해나 다사다난합니다만 지난해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우리 영상 기자들과 그들의 카메라가 함께했습니다.

출품작 모두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어서 굳이 수상작들을 선정해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 다. 그렇기에 수상작을 고르는 심사위원 모두 신중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작품을 평가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대상**은 KBS 부산 김기태 기자의 연속 기획 ‘목소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성 소수자 이야기부터 비혼 가정, 타투이스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릇된 시선으로부터 혐오와 차별을 받는 그들,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밀도 있게 담았습니다. 미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낸 작품입니다. 또한 너무 무겁지도 않게 감각적이며 따뜻한 영상과 편집은 감동과 재미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대상으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에서는 KBS 전주, 한문현 기자

의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로 결정됐습니 다. 다가올 2040년까지 약 3조 7천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책정된 새만금 항만터.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으며 공사 중 인 그곳에는 항만 기초 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있고 부실한 땀길 공사로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 사이로 찢어진 필터 매트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상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은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 시청자가 알기 쉽게, 영상과 그래프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의 항만을 찾아다니며 담은 생생한 현장들, 지역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작이라며 심사위원들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입니다. KBS 대구 최동희 기자가 출품한 “욕창이 온다”가 수상작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욕창의 심각성과 현실을 차분하게 영상으로 잘 풀었고, 기사에 필요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보여 주기 힘든 장면은, 이미지 컷을 잘 활용했습니다. 자칫 지루하기 쉬운 인터뷰 컷들도 다양한 앵글과 조명을 통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보도특집다큐부문 수상작입니다. 제주 MBC 김현명 기자의 ‘4.3 특집-남겨진 아이들’이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에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 직권 재심의 길이 열렸는데 그 재판정에 선 다섯 명의 유족들.

그분들의 애달프고 처참한 사연을 오랜 시간 취재한 작품입니다. 장찬수 판사는 무죄 판결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알렸고, 그것을 잔잔한 영상과 인터뷰로 잘 구성하였습니다.

멀티보도부문에서는 목포MBC 김승호 기자의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가 수상하였습니다. 한반도 도자 역사를, 남도 도자기 로드 탐험으로 담았습니다. 꼬박 2년 동안, 이 작품에 천착한 김승호 기자의 열정과 영상미를 많은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했습니다.

국제통일보도부문에 SBS 최대웅 기자의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가 수상했습니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 퐁넛’마을 주민 2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에 대한 취재입니다. 피해자 중 ‘응우옌 티 탄’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제 치하 피해자였던 우리가, 타국에서 벌인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슴 아프면서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인터뷰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다각의 영상취재를 위해 집벌, 슬라이더, 드론 등 여러 특수 장비를 동원해 촬영. 영상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환경보도부문에서는 KCTV제주방송의 김용민 기자의 “사

라진 제주 돌”이 선정됐습니다.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라는 김용민 기자. 그의 말처럼 이 작품은 점점 황폐화되는 제주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된 해양 시설물과 사라지는 몽돌의 관계도 현장 수중 촬영으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상관관계를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몽돌의 ‘백 웨이브’ 현상에 대한 수중 촬영, 부삽을 들고 바닷가로 향하는 해녀들이 부삽으로 바다 밑바닥을 헤치자 마치 거대한 먹물처럼 해녀들과 함께 피어오르는 검은 뿔은 상징적으로 제주 바다의 현재 모습인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언론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의 본보기가 됐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2024년 2월입니다.

올해의 뉴스 영상엔 더 좋은 일들이 많길 바라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사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굴함이 없이 올바른 영상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영상기자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TV 뉴스의 꽃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꽃을 활짝 피우세요.

KBS 뉴스7 연속기획 목소리

수상소감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문제적 키워드 중 하나는 ‘혐오’와 ‘갈등’일 겁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그리고 소수의 저항이 뒤엎혀 갈등의 소용돌이는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쿼어축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농성 등에 대한 논란이 번졌고, 법체계 안에서 직업적 존중을 받고자 하는 타투이스트, 동반자가 필요하지만 ‘결혼’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청년들, ‘학교’ 밖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는 취지의 기획입니다. 갈등 해소의 실마리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찾아가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화면에 잘 표현해내야 하는 지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타자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서라도,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해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프레임 속에서 자신이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그들은, 수많은 차별과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그들을 둘러싼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프레임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커플이나 청소년 사례의 경우, 동시에 인터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하였고, 지체장애인 동행 취재 때는 실재하는 어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 벽에 숨어 다니며 촬영

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념적인 내용을 시각화할 수 있을 만한 피사체와 공간을 찾기 위해 사진관, 학교 등 시내 곳곳을 부단히 돌아다녔습니다. 편집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막의 비중이 큰 인포그래픽형 영상이 컨셉이었던 만큼, 자막의 내용, 배열, 그것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컷의 선별 및 스토리텔링, 색보정을 비롯한 후반작업 등 모든 과정이 잘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편집, 팀 회의, 수정을 셀 새 없이 반복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뒤따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수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수도권보다 적은 ‘지역’이기에, 발생이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뉴스’였기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획을 내보내는 기회는 소중합니다. 힘들게 얻은 기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제작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방송차량에 실리지도 않아서, 손으로 몇 시간을 끌고 다니며 이미지컷을 촬영할 정도로 말입니다. 한국영상기자상을 제게 주신 것은, 그 책임감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제작한 취재기자 이이슬 선배와 박영심 작가님, 김희나, 김명진 그래픽 감독, 박삼강 촬영보조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이슬 선배와 나눈 많은 대화와 논의 덕에 오늘의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국,부장님과 보도국 선배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수상자



김기태
KBS부산

수상작



심사평

서태경: 사회적 약자 자신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통해 편견과 혐오, 차별이 따뜻한 포용으로 바뀔 수 있는 감각적인 영상과 편집. 감동과 재미를 함께 주었습니다.

마승락: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보도로 언론의 책무에 충실한 수작입니다.

조정영: 한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접근을 다큐 형식이 아닌 뉴스로 풀어낸 수작. 목소리뿐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 몸짓까지 읽을 수 있었음.

방세준: 혐오와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에 주목한 역작!

손준수: 사회통념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는 우리 이웃들의 정서를 다양한 구성을 통해 전달.

양재규: 지금까지 대상은 대작들의 몫이었다. 이 작품은 대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세상의 소음에 파묻히곤 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군더더기 없이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영상저널리즘의 본질을 웅변한, 또 다른 유형의 대작이 아닐까 싶다.

채영길: 혐오와 차별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그러한 혐오와 차별을 종종 외면하거나 증폭시키는 부작용의 책임이 있었다. 공영방송이 적극적으로 사회 소수자의 차별적 현실의 실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도하여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 공영방송에서 우리 사회 보편적인 소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파격적인 형식과 높은 수준의 영상과 편집으로 지역 공영방송의 역량과 역할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현장K]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단독 기획보도 땀질 처방만 반복된 항만 구조물 붕괴…‘기준’은 없었다

수상소감

정부가 새만금에 새로운 항만을 짓는 사업,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2040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쓰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인접한 바다에 기초구조물인 호안을 쌓고 이제 서서히 부지를 메워가는 중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의 뼈대인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땀질 처방만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기초구조물의 안전을 담보 하던 토목섬유, 이른바 ‘필터매트’는 서해의 극심한 조수간만 수압에 못 이겨 손상돼 있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단계부터 국가건설기준 자체가 일본식의 인용으로 국내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과 한계를 보도했습니다.

필터매트의 문제를 포착했지만, 사실 취재의 시작은 ‘천’이 아닌 ‘돌’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직은 겨울바람이 시릴 무렵 찾아온 업자는 국가항만 건설에 불량석재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이미 쌓아 올린 수십만 톤을 짝 갈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뭇 구미가 당겼으나 의도가 뻔해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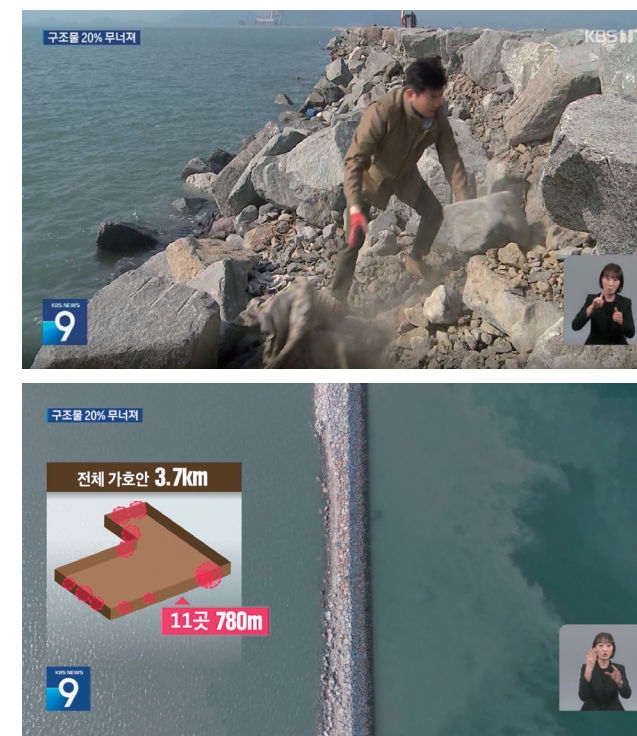
경계심은 곧 들어맞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에 쓰인 돌, ‘사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품질 검사 성적서를 떼봤고, 그것도 못 미더워 시료를 떼와 대학 연구팀에 보냈습니다. 이 작업에 쓰인 시간과 수고가 헛되어 매몰될 무렵, 정보 공개 청구 자료들이 뒤늦게 날아들었습니다. ‘사석이 쓰인 낱알의 공사를 공개하라’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작성한 <하자발생 조치 보고서>를 끼워 보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운데 “새만금 신항만 현장 내 호안 단면 하자 발생으로 조치하였으나, 추가 변위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추가’란 표현으로 보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고는 거듭된 듯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원인은 따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어 올린 항만 구조물이 1년 새 최소 11군데 무너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정부가 그간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또 다른 시설물을 더 점검하기로 하고 전국 현장 취감에 나섰습니다. 평택항과 영종도 등 앞선 현장들을 돌아보고 학계와 업계, 정부가 작성해 둔 과거 보고서와 논문 등 자료를 뒤져 뽑아낸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 삼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의 붕괴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리던 바람이 포근해질 즈음,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3편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는 대중의 체감 영역 밖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탓에 제대로 된 전달을 통한 인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토목공학 분야의 내용을 전하면서 일반 수용자의 이해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순화했습니다. 보도 영상 가운데 스튜디오 촬영물도 이런 맥락에서 기획됐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했고, 모든 과정에서 현장 전달과 시청자 이해를 우선으로 제작하려 했습니다.

3편을 합쳐도 불과 10분이 채 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녹여내며 현장과 편집실에서 함께 고민한 오정현 기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보도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상작



수상자



한문현

KBS전주

심사평

서태경: 방방곡곡의 항만마다 부실한 땀질 공사. 그 피해가 점점 커지는 현장들. 지역 언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현장 고발의 영상이 생생했습니다.

마승락: 지역의 한계를 넘어 항만건설의 부실 설계 고발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 작품입니다.

조정영: 지역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 전남, 부산 지역의 항만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취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한 역작.

방세준: 지역뉴스의 한계를 벗어나 그랜드한 기획력이 돋보임.

손준수: 붕괴되고 있는 항만 구조물의 현 상황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 이해가 쉽게 표현함.

양재규: 날카로운 문제의식, 꼼꼼한 취재, 현장을 생생히 포착한 영상의 힘.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교과서적인 작품이다.

채영길: 집요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국가 항만 공사가 우리나라 조수 간만차이를 무시한 일본 기준에 의한 중요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를 발견. 단순 지역 특종이 아닌 심층탐사보도에 의한 특종의 의미. 특히 핵심적 증거 화면 (필터매트 훼손, 문제의 원인 시각화 등)이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 주며 보도영상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KBS 기획보도 욕창이 온다 외로움에서 오는 병-욕창

수상소감

9년 전 저는 한국영상기자협회 대학생 명예카메라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명예기자 활동을 하면서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자리에도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선배님들의 수상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영상기자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부러웠고 거기에 상까지 받는 모습은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언제쯤이면 저 자리에 올라 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었던 상상들을 현실로 이룰 수가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무엇보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고민과 고충을 나누는 영상기자 선배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며 주신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더욱 값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영상기자가 되기 전엔 눈에 보이는 것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영상기자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창 또한 그러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전달해야만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데 욕창 3~4기의 경우 차마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공중과 방송에서 사실대로 보여드리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역시 엉덩이 주변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건 욕창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였습니다. 피부가 괴사하는 모습은 사과가 썩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발목지리와 같은 표현은 도미노로 연쇄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자극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 느낌을 잘 전달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창을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욕창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압력에 의해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아기가 욕창이 생겼다는 말은 잘 들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소홀했던 결과들이 욕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욕창이라는 질환은 단순히 환자 한 명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함께 동반했습니다. 욕창이 더욱 심해지지 않기 위해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가족이 환자 옆에서 간호를 할 순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환자 가족은 간병에서 해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하루에 약 15만원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욕창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욕창 치료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욕창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욕창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욕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간병비의 문제, 욕창 치료 비용문제 등 의료시스템과 사회적 비용들을 들여다보고 점검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상작



수상자



최동희

KBS대구

심사평

서태경: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욕창. 그 아픈 현실을 심각하지만 차분하게 영상에 담아 잘 풀어낸 작품입니다.

마승락: 욕창을 공론화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기획물입니다.

조정영: 욕창이라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지 컷을 통해 어떻게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영상기자의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임.

방세준: 다가오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욕창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함.

손준수: 욕창이라는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전달하였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야 하는 의료 대비책 등을 다시 되돌아보게 함.

양재규: 욕창이라는 한 가지 명확한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깊게 파고들었다. 영상의 울림 또한 큰 작품이다.

채영길: 영상기자 단독 기획에 의한 보도로 의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알 수 있게 해, 관련 이슈의 공론화를 가능하게 함. 지역뉴스 탐사이지만 전국적 이슈라는 점에서, 의료 관련 뉴스는 일반적인 관심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기도 함.

제주MBC 4.3 특별기획 남겨진 아이들

수상소감

정부가 새만금에 새로운 항만을 짓는 사업,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2040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쓰는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인접한 바다에 기초구조물인 호안을 쌓고 이제 서서히 부지를 메워가는 중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의 뼈대인 기초구조물이 계속 무너지고 땀질 처방만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기초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던 토목섬유, 이른바 ‘필터매트’는 서해의 극심한 조수간만 수압에 못 이겨 손상돼 있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계단계부터 국가건설기준 자체가 일본식의 인용으로 국내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과 한계를 보도했습니다.

필터매트의 문제를 포착했지만, 사실 취재의 시작은 ‘천’이 아닌 ‘돌’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직은 겨울바람이 시릴 무렵 찾아온 업자는 국가항만 건설에 불량석재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이미 쌓아 올린 수십만 톤을 짝 갈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뭇 구미가 당겼으나 의도가 뻔해 경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경계심은 곧 들어맞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에 쓰인 돌, ‘사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품질 검사 성적서를 떼냈고, 그것도 못 미더워 시료를 떼와 대학 연구팀에 보냈습니다. 이 작업에 쓰인 시간과 수고가 헛되지 매몰될 무렵, 정보 공개 청구 자료들이 뒤늦게 날아들었습니다. ‘사석이 쓰인 낱알의 공사를 공개하라’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작성한 <하자발생 조치 보고서>를 끼워 보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운데 “새만금 신항만 현장 내 호안 단면 하자 발생으로 조치하였으나, 추가 변위 발생”이라고 적혔습니다. ‘추가’란 표현으로 보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고는 거듭된 듯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원인은 따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어 올린 항만 구조물이 1년 새 최소 11군데 무너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정부가 그간 같은 방식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또 다른 시설물을 더 점검하기로 하고 전국 현장 취감에 나섰습니다. 평택항과 영종도 등 앞선 현장들을 돌아보고 학계와 업계, 정부가 작성해 둔 과거 보고서와 논문 등 자료를 뒤져 뽑아낸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 삼았습니다. 항만 구조물의 붕괴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리던 바람이 포근해질 즈음,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3편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는 대중의 체감 영역 밖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탓에 제대로 된 전달을 통한 인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양토목공학 분야의 내용을 전하면서 일반 수용자의 이해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순화했습니다. 보도 영상 가운데 스튜디오 촬영물도 이런 맥락에서 기획됐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했고, 모든 과정에서 현장 전달과 시청자 이해를 우선으로 제작하려 했습니다.

3편을 합쳐도 불과 10분이 채 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녹여내며 현장과 편집실에서 함께 고민한 오정현 기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보도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상작



수상자



김현명
제주MBC

심사평

서태경: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판정에 선 다섯 명의 유족들. 그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인터뷰에 담은 영상,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잘 알렸습니다.

마승락: 4.3의 역사적 기록물로 남을 다큐멘터리입니다.

조정영: 과거사로만 기억되는 4.3의 상처와 한을 지금껏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옴니버스 형식을 통해 차분하게 전달.

방세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보듬어야 할 아픔을 깊이 있게 조명한 작품.

손준수: 역사의 흐름에 아픔을 묻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표정과 구도를 통해 전달.

양재규: 이제는 노인이 된,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아이였던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자녀의 시선으로 재조명한 작품이다. 익숙한 주제를 새롭게 접근한 방식이 좋았고, 특히 대상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듯한 영상미가 뛰어난, 문자 그대로 수작(秀作)이다.

채영길: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상징하는 비극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역사이다. 이번 보도는 바로 그러한 과거사의 현대적 의미를 뛰어난 영상적 서사와 첨단 기법을 통한 생생한 재현 및 섬세한 인터뷰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SBS 8뉴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

수상소감

‘가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취재를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얕은 지식으로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현장을 되짚어 찾아간다니... 우리 역사의 과오를 스스로 파헤쳐 널리 알리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베트남 현지 취재는 순조롭게 될 것인지조차 불분명했다. 많은 생각과 불확실함을 잔뜩 안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퐁넛’ 마을에 진입, 게릴라 색출을 명분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70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응우옌 티 탄’ 씨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베트남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SBS는 선고 이후 실제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아가 생존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차로 수 시간, 한국에선 휴양지로 더 잘 알려진 다낭의 복잡한 관광지와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 한국군이 주둔했던 작은 마을에 도착하니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학살의 흔적과 기록(위령비, 증오비)은 생생하게 남겨져 후손들에게도 그날의 만행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만나주지 않거나 적개심을 갖고 대

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오히려 멀리서 취재를 와준 것에 감사해하며 오래된 이야기를 가슴 속에서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 탄’ 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어린 동생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밟고 도망치던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던 ‘응우옌 티 홍’ 씨도 있었다. 그들에게 우리 국방부가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알리니 총, 칼에 망가진 내 몸이 증거라며 저마다 옷을 들쳐 보이기도 했다.

베트남 취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류진성 씨를 만났다. 그는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몇 안 되는 참전 군인이었다. 무고한 양민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자신을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도 말했다.

노병의 말처럼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작품에 좋은 평가를 내려 주신 협회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쉽지 않았던 취재를 함께하며 매 순간 머리를 맞댄 김상민 기자와 물심양면 도움 주신 SBS영상취재팀 팀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수상자



최대웅
SBS

수상작



심사평

서태경: 일제 침략의 피해자였던 우리가 베트남에서 벌인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 부끄러운 우리의 그 과거. 피해자와 유족들을 재조명하면서 사죄하는 용감한 보도였습니다.

마승락: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참상을 다양한 영상 기법으로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정영: 한국의 어두운 과거사를 VR 등 특수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명한 의미 있는 기획물.

방세준: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에 대해 국가적으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한 작품.

손준수: 고통의 아픔을 안겨준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생각해 보게 함

양재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다. 베트남 현지 취재 등에도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다. 제작진의 용기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채영길: 베트남 현지 취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상취재 방법론과 드론을 포함한 효과적인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베트남 전쟁에서의 비극과 피해자 증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KCTV환경기획 뉴스멘터리 사라진 제주 돌

수상소감

어느 날 해녀 삼촌들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 과거 먹돌 해안으로 불리던 탐동 바다에 먹돌이 사라져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테왁과 망사리 대신 삽을 든 충격적인 모습으로 바다로 나선 삼촌들. 함께 들어간 바다에 그 많던 돌은 사라지고 퇴적물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삽으로 힘겹게 검은 퇴적물을 파내자 암흑 속에 묻혀있던 먹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도동 주민들은 몽돌해안으로 유명한 알작지의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주 바다의 '몽돌', '먹돌'은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보호받고, 특히 제주특별법에서도 '화산송이'나 '검은 모래' 등과 함께 주요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라산에서부터 오랜 시간 굴러 내려와 제주만의 독특한 해안 경관을 만들던 몽돌과 먹돌.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돌이지만 돌이 사라지면 제주의 역사와 가치도 사라진다는 생각에 6편의 기획취재와 뉴스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내도동 알작지의 몽돌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에 집중했습니다. 오랫동안 내도동에서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특정 지점에서 몽돌이 얼마 동안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규명하는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KCTV제주방송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2021년 알작지 해변 촬영 지점을 2023년 같은 위치, 같은 각도에서 재촬영해 실제 몽돌 유실 여부를 비교했습니다. 촬영 결과 불과 2년 만에 몽돌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안 시설물이 들어서며 바뀐 물길과 파도로 인해 해안가 더 많은 몽돌이 먼바다로 사라지는 '백웨이브' 현상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몽돌 유실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나 보존 대책은 몽돌과는 무관한 엉터리 대안뿐이었고, 몽돌 유실은 해안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방치와 무관심이 더해진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먹돌 해안. 해녀들과 함께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녀들은 삽으로 모래와 진흙을 파내고 그 아래 파묻혀 있던 먹돌을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퇴적물로 인해 먹돌이 사라지자 해조류와 생물이 자취를 감추고, 해양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해녀들의 생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태를 수중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해녀들은 먹돌이 사라진 이유를 방파제로 지목했습니다.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방파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였습니다.

탐동 방파제 축조 공사 이후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으로는 해양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와 각 조사 지점의 실제 해양 환경을 직접 촬영해 비교했고, 수질과 퇴적물 등 각종 분석표를 바탕으로 해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해양 수질, 식생, 해안 토목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여러 개의 오류 값도 발견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요 지점과

수상작



항목별로 조사하도록 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오류투성이었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에 평가 권한을 이양할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선도적 위치에 있는 제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획을 시작하며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과거 촬영된 자료와 같은 곳을 명확하게 비교해 변화한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고 진실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수중촬영(수중드론)과 120,240HFR 고속수중촬영을 통해 보고서와 다른 해양 실태를 보여줬고, 24M 프로브렌즈와 슬라이더를 활용해 어려운 보고서의 내용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규 뉴스 보도 이후 6편의 기획뉴스를 '뉴스멘터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마을 주민, 해녀들이 의혹만으로 제기했던 해양 시설물과 몽돌, 먹돌 유실과의 인과관계를 수개월간의 현장 수중 촬영과 자료 분석, 심층 취재를 통해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규명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보람도 큼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취재를 같이한 KCTV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자



김용민
KCTV제주방송

심사평

서태경: "영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말대로 피폐해지는 제주의 슬프고 아름다운, 진실한 영상. 지역 언론의 책무를 잊지 않은 본보기였습니다.

마승락: 제주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감각적인 영상으로 잘 표현한 작품으로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정영: 수개월에 걸친 자료 분석을 위한 노력과 수중촬영, 과거 화면과의 비교, 프로브 렌즈를 활용한 보고서 촬영 등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참신한 시도가 돋보임.

방세준: 자칫 지나치기 쉬운 환경 변화를 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수준 높은 수중촬영을 통해 그 효과를 배가시킨 작품.

손준수: 아름다운 관광지 뒤에 감춰진 아픔을 겪고 있는 제주 해안의 상황을 영상미학으로 표현.

양재규: 좋은 작품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몽돌'이라는 명징한 소재로 '산업화의 위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 간결하고도 깊이가 있다.

채영길: 비공개 처리된 용역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몽돌 유실의 생생한 실태를 드론과 수중 촬영 등을 통해 알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파괴가 단순히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방치와 무관심 및 용역 업체의 부실시공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목포MBC 10부작 미니 다큐멘터리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

수상자



김승호
목포MBC

수상소감

도자기는 인류의 발전과 진화를 알려주는 문명의 상징물로 손꼽힌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 낸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으며 최초의 고부가가치 상품이자 최대의 국제 교역 상품이었다.

우리 전통 도자기는 백자에서 청자, 녹청자, 분청사기, 옹기까지 제작 방법과 재료, 이름까지 다양하다.

도자기가 선을 보이던 옛적 도자 기술을 가진 나라는 곧 세계 첨단 기술을 선도한 국가를 의미했고 15세기까지 세계에서 자기를 구워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었다.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는 영상강을 따라 형성되고 이어온 도자의 역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특히 삼국시대부터 옹기와 질그릇을 만들어 온 도자기의 고장 무안의 분청사기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도자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주부터 무안, 강진, 영암, 해남까지 세포처럼 연결돼 살아 숨 쉬는 도자 역사를 기록했다.

목포MBC가 시도한 10부작 숏폼 미니 다큐멘터리 ‘남도의 혼, 도자기 오디세이’가 명맥을 잇고 있는 도공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도자의 역사가 새로 조명받는 계기를 제공하는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심사평

서태경: 장장 2년 동안 이 작품에 천착한 기자의 열정만큼 훌륭한 영상미. 남도 도자기 로드, 도공들의 땀방울과 뜨거운 예술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승락: 남도 도자기 역사를 빼어난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조정영: 전남의 10여 개 지역 도공들을 직접 만나 남도 도자기를 예술적으로 표현,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수작

방세준: 도자기 장인에 대한 뛰어난 영상미와 깊이 있는 전달력이 돋보인 작품.

손준수: 전남지역의 도자기 발상지와 발전해 왔던 여정을 절제 있게 표현.

양재규: 도자기에 대한 영상기자의 열정이 오롯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이다.

채영길: 영상보도는 취재보도의 영역을 넘어서 영상미를 통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확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작품임. 목포를 포함해 남도의 도자기가 가진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도예 기술과 문화를 뛰어난 영상미에 담아 교양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수상작



공로상 수상자

협회 발전 및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성공 기여



김경록
YTN광주 부국장,
한국영상기자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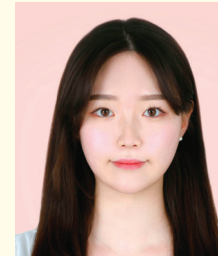


손영원
부산MBC 부국장,
한국영상기자협회 부회장

협회원 역량강화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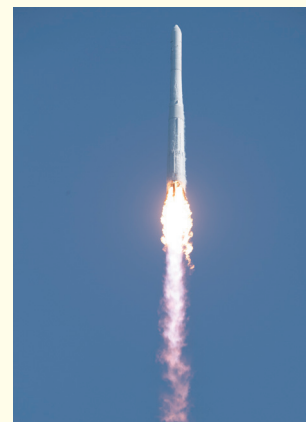
장민주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교육팀 대리



이수연
한국전파진흥협회
미디어콘텐츠교육팀 주임

굿뉴스메이커상

영상기자가 뽑은 2023 굿뉴스메이커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적: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서태경
前MBC플레이비 이사

영상기자



마승락
대구MBC 보도국 국장



방세준
KBS 뉴스영상콘텐츠부장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변호사



나준영
제27·28대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조정영
SBS A&T 영상취재팀 팀장



손준수
JTBC 영상취재팀장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세훈
MBC 뉴스영상편집팀장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이경선
한국영상기자협회 간사

심사 실무 및 지원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국

역대 대상 수상자

1987년 제 1 회	●	KBS 이상만, 강성호 기자 「이란 가스 정유소 피폭 현장」
1988년 제 2 회	●	「자연 다큐멘터리 수종의 신비」
1989년 제 3 회	●	KBS 이종완 기자 「갈매기의 죽음」
1990년 제 4 회	●	MBC 이성우, 이용우 기자 「여기는 북극점」
1991년 제 5 회	●	미개척
1992년 제 6 회	●	KBS 박재홍, 강형식 기자 「티벳 히말라야의 신비」
1993년 제 7 회	●	대상 수상자 없음
1994년 제 8 회	●	대상 수상자 없음
1995년 제 9 회	●	대상 수상자 없음
1996년 제10회	●	MBC 김경배 기자 「심야 전철 안 소매치기」
1997년 제11회	●	MBC 김상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병원 나들이」
1998년 제12회	●	KBS 양용철 기자 「남태평양 참치 선단 보고」
1999년 제13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00년 제14회	●	YTN 한원상 기자 「경찰 노조원 폭행 진압」
2001년 제15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02년 제16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03년 제17회	●	PSB 하호영 기자 「해파리의 침공」
2004년 제18회	●	MBC 박승규 기자 「大.自.由.人 韓國의 비구니」
2005년 제19회	●	마산MBC 정건 기자 「거장 문신」
2006년 제20회	●	KBS 김철호 기자 「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2007년 제21회	●	MBC 이성수, 심승보 기자 「역지사지」
2008년 제22회	●	광주 MBC 강성우 기자 「HD영상기록 <아시아> 3부작」
2009년 제23회	●	KBS 손병우 기자 「1. 쌍용차 대치 나흘째, 도장 공장 안에선... 2. 공장 내부 '생지옥'...암흑 속 장기화 대비」
2010년 제24회	●	KBS 고성준, 장세권 기자 「KBS10 - 학자와 논문」
2011년 제25회	●	KBS 성인현, 민창호 기자 「리비아 폭격 보도」
2012년 제26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13년 제27회	●	OBS 경인TV 채종윤 기자 「'끝나지 않은 아픔」
2014년 제28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15년 제29회	●	KBS 대전 심각현 기자 「영상기록 500일 금강비행」
2016년 제30회	●	SBS 이병주, 김태훈 기자 「응답하라 노량진 수산시장」
2017년 제31회	●	OBS 기경호, 최백진 기자 「세월호 그 후, 트라우마는 누구의 것인가」
2018년 제32회	●	MBC 김기덕, 박주일, 이종혁, 박주영 기자 「'현장36.5' 시리즈」
2019년 제33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20년 제34회	●	포항MBC 양재혁 기자 「포항MBC 특집 '그 씻물 쓰지마라」
2021년 제35회	●	KCTV제주방송 김용민 기자 「할망바당」
2022년 제36회	●	대상 수상자 없음
2023년 제37회	●	KBS부산 김기태 기자 「연속기획 '목소리」

2023년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작

제109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1월~2월) 수상작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육창이 온다」 KBS대구 최동희
- **인권,노동보도부문**
「KBS대전 개국 80년 UHD특별기획 '외면의 기록, 생존자」 KBS대전 심각현
- **국제,통일보도부문**
「튀르키예 지진 현장 취재 시리즈」 MBC 정인학, 김준형

제110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3월~4월) 수상작

- **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포탄 해외 반출 단독 보도」 MBC 김준형
-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연속단독보도」 목포MBC 홍경석, 노영일
-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작전명 '모차르트'...SK의 수상한 파트너」 SBS 하룡
- **보도특집다큐부문**
「4.3특집 남겨진 아이들」 제주MBC 김현명
- **멀티보도부문**
「[현장 36.5] 응급구조사가 된 세월호 생존 학생」 MBC 손지윤
- **인권·노동보도부문**
「'절대 극비」 KBS제주 고진현
- **국제·통일보도부문**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보도」 SBS 최대웅

제111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5월~6월) 수상작

-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마약 팬데믹' 골든타임은 있다」 SBS 김승태
-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와르르' 국가항만, 총체적 부실 보고서) 단독 기획보도」 KBS전주 한문현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돌고래보고 캥거루체험'...해외출장에 10억 쓴 의원님들」 부산MBC 박현진
- **멀티보도부문**
「YTN 탐사보고서 기록 (강제동원-피해자 없는 시대)」 YTN 시철우
- **인권·노동보도부문**
「검은 속삭임 널 구해줄게 기획보도 7편」 MBC충북 김병수

제112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7월~8월) 수상작

-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청주 오송 공평지하차도 참사 단독 및 기획 연속보도」 KBS청주 강사완, 김장현, 김성은
-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단독] [바로간다] 예천 산사태 시작 지점 가보니.. "발전소 관리 도로 붕괴」 MBC 박주영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해수면 상승, 위기의 한반도」 G1방송 권순환
- **환경보도부문**
「[밀착카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비매너"에 몸살 앓는 계곡」 JTBC 박재현

제113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9월~10월) 수상작

- **지역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탐사K〉 청정제주, 공공 하수슬러지 처리의 민낯 연속보도」 KBS제주 강재윤
- **보도특집다큐부문**
「〈지역특집다큐〉 - 로드투테이블」 KBS청주 김현기
- **국제,통일보도부문**
「하마스 가장 먼저 침투한 가자지구 코앞 마을 가보니... 머리 위로 로켓포 날고 수시로 공습경보」 JTBC 황현우
- **환경보도부문**
「KCTV환경기획 사라진 제주 돌, 뉴스멘터리 사라진 제주 돌」 KCTV제주방송 김용민

제114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2023년 11월~12월) 수상작

-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소년들은 왜 사라졌는가? '선감학원」 YTN 강영관
-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주거빈곤 최초실태 그곳에 아이가 산다」 KBS부산 장준영
- **보도특집다큐부문**
「지구의 유산 마지막 0.7%」 JIBS 윤인수, 고승한
- **인권,노동보도부문**
「연속기획 '목소리」 KBS부산 김기태
- **환경보도부문**
「소양강댐 50주년 기념 KBS 특별기획 '갈색 이방인」 KBS춘천 최혁환

역대 굿뉴스메이커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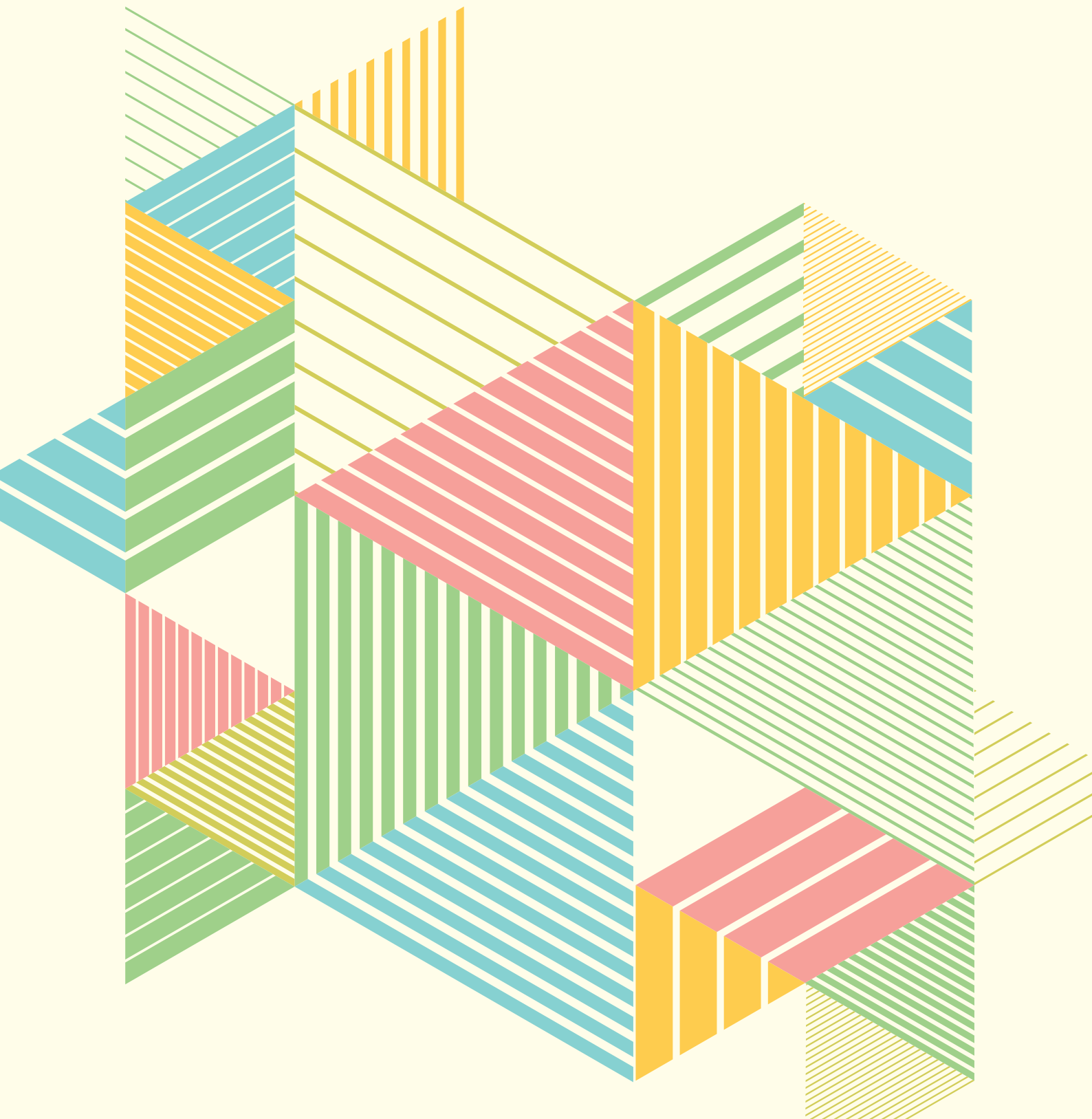
- 2003년 제 1 회 ● 법무부 장관 강금실, 아름다운재단, 철도원 김행균
- 2004년 제 2 회 ● 아테네 올림픽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 2005년 제 3 회 ●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
- 2006년 제 4 회 ●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 2007년 제 5 회 ● 수영선수 박태환,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 2008년 제 6 회 ● 우주인 이소연, 가수 김장훈
- 2009년 제 7 회 ● 홍명보 청소년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안철수 연구소
- 2010년 제 8 회 ● 17세 이하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추신수 야구선수
- 2011년 제 9 회 ●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
- 2012년 제10회 ● 가수 싸이
- 2013년 제11회 ● 류현진 LA다저스 투수
- 2014년 제12회 ● 서건창 넥센 히어로즈 선수
- 2015년 제13회 ● 전인지 골프선수
- 2016년 제14회 ● 박상영 펜싱 국가대표 선수
- 2017년 제15회 ● 촛불 시민들
- 2018년 제16회 ●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 2019년 제17회 ● 영화 '기생충' 봉준호 감독
- 2020년 제18회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 2021년 제19회 ●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과 군 특수임무단
- 2022년 제20회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주장 손흥민 선수
- 2023년 제21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한국영상기자협회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제37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2024. 02. 16.(금)
18:00

주최



후원

Panasonic

협찬

